

# 국민 70% 이상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 한국 종합 4위”

문체부, 제5차 평창 대회 국민 여론조사 결과

관심도 45%로 상승...직접 보겠다는 사람 5%

국민의 70% 이상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와 한국의 종합 4위 목표 달성을 낙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창올림픽 관심도는 높아지고 있지만 직접 경기를 관람하겠다는 국민은 여전히 적다.

문화체육관광부가 8. 9일 15~79세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제5차 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20일 밝혔다.

응답자의 16.5%는 대회가 '매우 성공'할 것, 53.9%는 '성공'할 것이라고 답했다. 20.9%가 응답을 유보한 가운데 7.7%는 '우려', 1.0%는 '매우 우려'라는 답을 내놨다. 응답자의 70.4%가 성공을 전망한 셈이다. 3월 1차 조사 당시 55.1%, 5월 2차 조사 62.9%, 7월 3차 조사

63.8%, 9월 4차 조사 66.6%보다 높아진 수치다.

한국 선수단은 안방에서 열린 평창올림픽에서 금메달 8개, 은메달 4개, 동메달 8개를 따 역대 최고 성적인 종합 4위에 오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민의 71.4%가 이러한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불가능하다는 응답자 7.8% 중 33.8%는 종합 10위에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회 조직위원회가 붙임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평창올림픽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자 중 45.1%가 평창올림픽에 관심이 있다고 답했다. 지난 9월 4차 조사 당시 39.9%보다 5.2% 상승한 수치다. 3월 조사 이후 가장 높다. 관심없다고 답한 응답자

는 15.9%에 불과하다.

동계패럴림픽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9월 4차 조사 당시 22.9%보다 5% 증가한 27.9%로 조사됐다. 이 역시 3월 1차 조사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응답자 중 44.6%가 평창올림픽을 기대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15.5%가 평창올림픽이 '매우 기대'된다는 의사를 드러냈고, 29.1%가 '약간 기대'된다는 반응이었다. '기대 안 된다'는 응답자는 17.4%였다.

반면 경기장에서 직접 관람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이는 적었다. 경기장에서 직접 관람하겠다는 응답자는 5.1%(복수응답 가능)에 그쳤다. 9월 4차 조사 당시 7.1%보다 2%가 낮아졌다.

88.4%가 중계를 통해 TV로 경기를



를 시청하겠다고 했고, 방송·인론을 통해 뉴스 소식을 접하겠다는 응답자가 54.5%였다. 거리 단체응원을 하겠다는 응답자는 2.2%였다.

문체부는 '최근 부각된 개최지의 비싼 숙박비 등 부정적 논란

의 영향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와 조직위의 대책 마련을 통한 현지 숙박비 안정화 추세와 경강선 고속철도(KTX) 개통 효과가 아직 반영되지 않은 결과"라고 전했다.

국민들이 평창올림픽과 관련해 가장 먼저 떠올리는 키워드는 '피겨여왕' 김연아였다. 한국의 효자 종목 쇼트트랙과 김연아로 인해 인기가 상승한 피겨스케이팅이 차례로 뒤를 이었다.

## 돌아온 '타격 기계' 김현수, 타이틀 경쟁 구도 혼드나

매년 3할 이상 타율 기록...박병호까지 가세 지각변동



미국 생활을 뒤로 하고 국내로 돌아온 김현수(29)가 '타격 기계'의 견제함을 과시하며 KBO리그 타이틀 경쟁 구도를 흔들 수 있을까.

LG 트윈스는 19일 자유계약선수(FA) 김현수와 계약기간 4년, 총액 115억원(계약금 65억원·연봉 50억원)에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KBO리그 역대 2위에 해당하는 계약 규모다. 이대호(36)가 올해 친정팀 롯데 자이언츠로 복귀하면서 계약 기간 4년, 총액 150억원에 계약한 것이 역대 최고액이다.

박병호(31·넥센 히어로즈)가 복귀해 홈런왕 경쟁 구도에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김현수까지 돌아오면서 내년 시즌 타이틀 경쟁 구도에 지각 변동이 일어날 전망이다.

정교한 타격 능력을 자랑하는 김현수는 매년 강력한 타격왕 후보로 거론됐다.

미국 진출 전까지 10시즌을 뛰면서 통산 1131경기에 출전한 김현수는 통산 타율 0.318(406타수 129안타)를 기록했다. 2008년부터 미국 진출 전인 2015년까지 2012년(타율 0.291)을 제외하고는 매년 3할 이상의 타율을 기록했다.

2008년 0.357(470타수 168안타)의 높은 타율을 기록해 타격왕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그 해 최다 안타 타이틀도 김현수의 차지였다. 2009년 0.357(482타수 172안타)의 타율을 기록해 3위에 오른 김현수는 2년 연속 최다 안타 1위에 등극했다. 2010년에도 150개의 안타를 쳐 최다 안타 부문 3위에 올랐다.

올해 메이저리그에서 충분히 기회를 얻지 못한 탓에 타율 0.231(212타수 49안타)에 그쳤지만 바리깡 데뷔 첫 해인 2016년에는 98경기에서 타율 0.302(305타수 92안

타)을 때려내며 타격 능력을 뽐냈다. 플래툰 시스템으로 매일 경기를 소화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타율 3할을 넘겼다.

김현수가 미국으로 떠난 이후 2016년에는 타율 0.376을 기록한 최형우(KIA 타이거즈)가, 올해에는 타율 0.370을 찍은 김선빈(KIA)이 타격왕 타이틀을 가져갔다.

지난해 김태균(한화 이글스·0.365)과 이용규(한화·0.352), 김주찬(0.346), 박용택(LG 트윈스·0.346)이 타격왕 경쟁을 펼쳤다. 올해에는 박용택, 최형우가 견제한 가운데 박건우(두산 베어스·0.366), 박민우(NC 다이노스·0.363), 나성범(NC·0.347)이 타격왕 경쟁에 가세했다.

최다 안타 부문에서는 지난해 최형우(195개)가 1위에 오른 가운데 김태균(193개), 이대형(KT 위즈·192개), 손아섭(롯데·186개), 서건창(넥센 히어로즈·182개)가 뒤를 따랐다. 올해에는 손아섭이 193개의 안타를 쳐 타이틀을 가져갔고 김재환(두산)이 185개로 2위였다. 서건창, 이정후가 나란히 179개의 안타를 쳐 공동 3위를 차지했다.

2009년 이후 개인 타이틀을 거머쥐지 못한 김현수지만, 역대 2위 몸값을 기록한 해낸다면 타격왕과 최다 안타 부문 경쟁은 한층 뜨거워질 가능성이 높다.

김태균과 서건창, 박용택, 손아섭 등 타격왕·최다 안타 경쟁 터줏대감들과 '신승 세력' 박건우, 박민우, 이정후 등이 버티고 있는 가운데 김현수가 경쟁 구도를 바꿀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손흥민-이민아, '올해의 남녀 축구선수' 선정

영플레이어상, 오세훈·이수인 뽑혀

손흥민(토트넘)과 이민아(고베 아이낙)가 2017년 한해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대한민국 축구 선수로 선정됐다.

대한축구협회(KFA)는 19일 오후 서울 새빛섬에서 '2017 KFA 시상식'을 열고 소속팀과 대표팀에서 최고의 기량을 뽐낸 손흥민과 이민아에게 각각 남·녀 '올해의 선수상'을 수여했다.

남자 올해의 선수는 대한축구협회 출신인 선수와 협회 전임 지도자의 투표로 선정됐다. 여자 선수는 WK리그 감독들과 각급 여자 대표팀 코칭스태프가 투표에 참여했다. 투표자 1명당 1, 2, 3위로 순위를 정해 3명의 선수를 추천할 수 있게 했다.

손흥민은 총 168점을 득표하면서 최근 K리그와 동아시아컵 MVP를 잇따라 수상한 이재성(전북·131점)을 제치고 2017년 대한민국 최고의 선수 지리에 올랐다.

대표팀의 이소로 활약하면서 소속팀 토트넘에서도 한국 선수로는 유럽 리그 한 시즌 최다골(10골)을 기록하는 등 불운 공격력을 과시했다.

손흥민이 올해의 선수상을 받은 것은 2013년과 2014년 연속 수상에 이어 세 번째다. 세 차례 수상은 기성용(2011, 2012, 2016년)과 함께 공동 최다 기록이다.

이민이는 올해 WK리그에서 28경기 14득점 10도움을 기록하며 인천 현대제철의 5년 연속 우승에 핵심 역할을 했다. 득점과 도움 모두 브라질 선수 비아에 이어 2위다.

대표팀에서도 센스 있는 볼터치와 패스로 공격을 이끌며, 아시아컵에선 평양원정파와 동아시아컵에서 활약했다. 이민아가 올해에 선수에 뽑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마추어 지도자에게 주어지는 올해의 지도자상은 울산현대고교를 고교왕중왕전 우승 등 5관왕으로 이끈 박기욱 감독과, 여고부 3개 대회 우승을 차지한 중주예상고교 권무진 감독에게 돌아갔다.

또 새롭게 떠오른 투수들을 위한 '영플레이어' 상에는 U-18 대표팀과 울산현대고교의 공격수 오세훈, 여자 U-16 대표팀의 주전 수비수 이수인(울산 현대청운중)이 각각 선정됐다.

1970년대 초반 대한축구협회장을 역임하며 금융단 축구팀 창단 등



2017 대한축구협회 시상식이 열린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새빛섬에서 올해의 선수상 여자부 수상자 이민아(인천현대제철->고베 아이낙)가 정몽규 축구협회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로 한국 축구의 새 시대를 열었던 정몽규 회장에게는 특별공헌상이 주어졌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이밖에도 공로패, 감사패 수여와 함께 우수 심판, 우수 생활축구클럽 등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다.

## 오승환 2018 예상성적표, 58⅓이닝 평균자책점 3.39



메이저리그(MLB) 잔류를 바라고 있는 오승환(36)이 내년 시즌 올해보다 나은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야구통계사이트 팬그래프닷컴은 야구 예측시스템인 ZIPS(Zymbarski Projection System)

로 예측한 2018년 메이저리그(MLB) 각 구단 선수들의 성적을 공개하고 있다. 20일(한국시간)에는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소속이던 선수들의 성적을 예측했다.

오승환은 지난해와 올해 세인트루이스에서 뛴 후 자유계약선수

(FA)가 돼 새 팀을 찾고 있지만, ZIPS는 오승환이 내년 시즌에도 세인트루이스에서 뛴다는 가장 하에 예상 통계를 내놨다.

오승환은 60경기에 등판해 58⅓이닝을 던지면서 평균자책점 3.39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63개 탈삼진을 기록하는 반면 볼넷은 14개만 내주고, 9이닝당 탈삼진 수는 9.73개일 것으로 전망했다. 예상 대체 선수 대비 슬러기여도(WAR)는 1.1이다.

지난해 76경기에서 79⅓이닝을 소화하며 6승 3패 19세이브 14홀드 평균자책점 1.92의 빼어난 성적을 거둔 오승환은 올해 주춤했다. 지난 시즌이 끝난 뒤 ZIPS는 오승환이 평균자책점 2.64, 탈삼진 18개, 볼넷 15개, 9이닝당 탈삼진 11.27개, WAR 1.3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예상보다 저조한 성적을 거뒀다.

## '세계 1위' 러시아 빙속 유스코프, 도핑 의혹 벗었다

IOC "도핑 증거 못찾아...조사 모두 끝"

남자 스피드스케이팅 1500m 세계 랭킹 1위인 러시아의 데니스 유스코프(28)가 도핑 의혹을 벗었다.

국제 스포츠전문매체 인사이더 더 게임스는 19일(한국시간)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유스코프의 도핑에 대한 어떤 증거도 찾지 못했다. 그에 대한 조사는 모두 끝났다"고 보도했다.

IOC 역시 이 같은 의견을 공식 인정했다. 도핑 의혹을 벗은 유스코프는 이로써 내년 2월 평창동계올

림픽에 출전할 자격을 얻었다. 러시아 국가가 아닌 개인 자격 출전이다.

유스코프는 평창올림픽 출전권이 걸려 있던 1~4차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월드컵 대회에서 3차례 우승을 차지한 1500m 최강자다.

특히 4차 대회에서는 1분41초02에 결승선을 통과해 사니 데이비스(미국)가 보유하고 있던 세계기록을 8년 만에 갈아치웠다.

2013년, 2015년, 2016년 세계선수



권 우승자로 강력한 금메달 후보다